



미 증시, 인플레 불안에 따른 투매현상 지속

미국 증시 리뷰

13 일(월) 미국 증시는 지난 5 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6 월 FOMC에서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전망 등이 연이은 투매현상을 초래하면서 급락(다우 -2.79%, S&P500 -3.88%, 나스닥 -4.68%, 러셀 2000 -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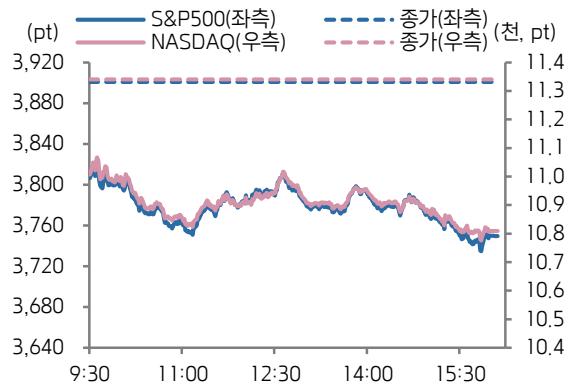
전일에 이어 인플레이션 충격이 지속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지속적으로 낙폭을 확대, 종가 기준으로 S&P500 지수는 고점대비 21%, 나스닥은 고점 대비 33% 하락하며 약세장에 진입.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이후 현지시간 14일에 있을 6 월 FOMC에서 75bp 인상 가능성성이 큰 폭으로 높아지며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3.36%, 10년물 국채금리는 3.37%대까지 급등.

2년물 금리의 급등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며 장중 2년물-10년물 금리차는 역전되기도 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높임. 또한 중국 코로나 19 집단감염 소식이 전해지며 재봉쇄 우려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상승 마감했다는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

업종별로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필수소비재(-2.2%), 금융(-2.9%), 헬스케어(-3%)의 낙폭이 가장 작았고, 에너지(-5.1%), 부동산(-4.8%), 경기소비재(-4.7%)의 낙폭이 가장 컸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5.61%), 다우 운송지수(-3.03%) 등 주요 지수는 크게 하락한 반면 VIX 변동성지수는 22.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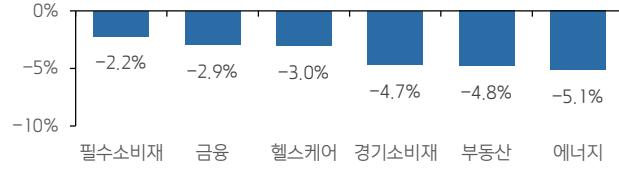
애플(-3.83%), 알파벳(-4.29%), 아마존(-5.45%) 등 시총 상위 업종 대부분이 하락 마감. 메타(-6.44%), 테슬라(-7.1%), 엔비디아(-7.82%), 마이크론(-6.04%)를 비롯한 대형기술주의 낙폭 확대. 경기침체 우려 반영하며 카니발(-9.72%), 보잉(-8.64%) 등 여행 및 항공 업종 급락. 위험선호심리 크게 위축되며 가상화폐 시장의 급락으로 비트코인의 시총은 1조달러를 하회하고, 코인베이스(-11.21%)를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주 하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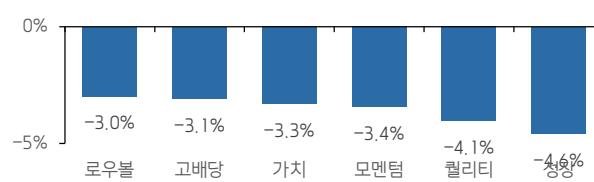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749.63	-3.88%	USD/KRW	1,284.25	+1.24%
NASDAQ	10,809.23	-4.68%	달러 지수	105.20	+1.01%
다우	30,516.74	-2.79%	EUR/USD	1.04	+0%
VIX	34.02	+22.59%	USD/CNH	6.78	-0.03%
러셀 2000	1,714.60	-4.76%	USD/JPY	134.43	+0.01%
필라. 반도체	2,673.00	-5.61%	채권시장		
다우 운송	12,963.86	-3.03%	국고채 3년	3.530	+25.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678	+18.8bp
Eurostoxx50	3,502.50	-2.69%	미국 국채 2년	3.354	+29.1bp
MSCI 전세계 지수	597.64	-3.65%	미국 국채 10년	3.360	+20.4bp
MSCI DM 지수	2,641.69	-2.95%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54.64	-1.17%	WTI	120.93	+0.22%
MSCI 한국 ETF	60.26	-4.55%	금	1831.8	-2.3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4.5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3.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1.6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0.8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 미국 증시 패닉셀링 충격이 국내 증시에 전이효과를 미칠 가능성
- 장중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
-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 근접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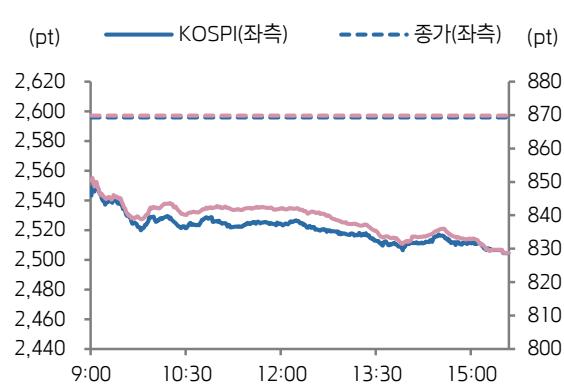
현재 시장은 지난 10 여년간의 “디플레이션 압력 우위+유동성 과잉”의 조합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 압력 우위+유동성 축소”의 조합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격 조정)를 크게 겪고 있는 모습. 지난 10 일 미국의 5 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주요국 증시에 패닉셀링이 출현한 배경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연준의 한층 더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형성된 데서 찾아볼 수 있음. CME Fed Watch 상 6 월 75bp 금리인상 확률은 소비자물가 발표 전 3%대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6%대까지 급등한 상황. 연말 기준금리 상단(현 1.0%) 컨센서스의 경우, 6 월 초까지만 해도 2.75%(확률 50.9%→1.5%)로 형성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3.75%(0.3%→35.8%)로 급변한 상황(4.0%대 도달 확률도 기존 0%에서 15%대로 급등).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6 월 FOMC 100bp 인상이라는 극단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6 월 FOMC 에서 연준이 금리인상 강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또 시장이 FOMC 이후 그러한 연준의 판단을 추가 악재로 해석할지, 또는 악재의 재료 소멸 인식으로 해석할지가 관건이 된 상황. 더 나아가 현재는 5 월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이후 이에 대한 연준의 판단 변화를 시장이 접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6 월 FOMC(15 일 한국시간 새벽 발표) 이전까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다만 미국 나스닥 고점대비 하락률이 약 31%대로 지난 코로나 판데믹 당시(-28%)를 넘어선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현 구간에서는 저점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해줄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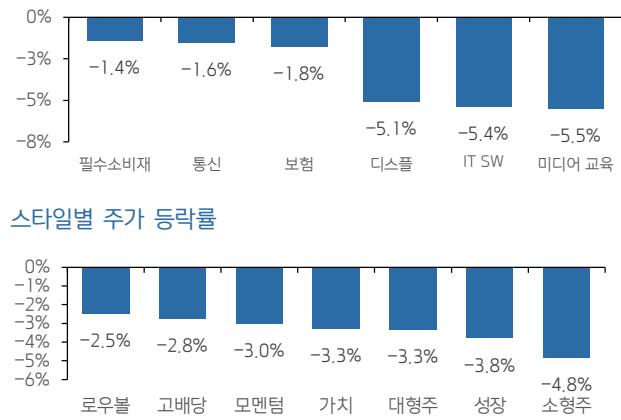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인플레이션 쇼크 여진 속 선진국 증시 급락, FOMC 불안심리 등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 최근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 조정을 유발한 또 다른 원인은 코인담보대출업체인 셀시우스의 인출중단 사태 등에서 기인한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폭락도 작용한 만큼, 장중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변화에도 주목해볼 필요.

한편, 지난 13 일 종가로 2,504pt 를 기록한 코스피는 주봉상 장기지지선인 200 주선(2,476pt)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도 실종된 만큼, 현시점에서 지수 하단을 설불리 예단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그럼에도 선행 PBR 상으로 0.9 배(2,512pt 대)를 하회하고 있으며, 후행 PBR 상으로도 1.0 배(2,520pt 대, 현 0.99 배)도 하회하는 등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역사적 하단에 도달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지수의 추가적인 레벨 다운은 제한적일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